

# 『두시언해』 「초간본」 언해본 재구 시론(1)\*

김성주\*\*

- 차례 -

1. 서론
2. 『두시언해』 「중간본」의 특징
3. 『월촌두시』의 특징
4. 재구의 실제
5. 결론

---

\* 이 논문은 2019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9-OLU-2250002)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조교수, sutra01@hanmail.net

### [국문 초록]

이 글은 의성김씨 삼대종택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두시(杜詩)』(이하 『월천두시』라 부름)에 필사되어 있는 『두시언해』 언해문을 바탕으로 『초간본』 『두시언해』가 전해지지 않은 『두시언해』 권 1·권2·권4의 언해문 재구를 위한 시론적 성격을 띠는 글이다.

『두시언해』 「초간본」 언해문의 복원을 위해서는 『두시언해』 「중간본」이 바탕이 된다. 그러나 「중간본」 언해문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속격 조사, 강세보조사 ‘-ㄱ, -엄/암, -마른’, 선어말어미 ‘-오-’ 관련 형태, 동명사 어미에서 교체된 명사형 어미, ‘-돌-/-드뵈-’; ‘-롭-/-르뵈-’ 파생 형용사, ‘긋바 허-’, ‘긋기-’ 등의 어휘 등은 「월천두시」 언해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월촌두시』도 언해문 전사에서 구결자의 사용으로 인한 모음조화 표기의 부정확함, 필사 시의 오류 등의 문제도 있지만 『월촌두시』의 언해문을 통해 보다 「초간본」 언해문에 가까운 텍스트를 얻을 수 있다.

**주제어** : 삼대종택, 월촌두시, 두시언해, 초간본, 중간본, 언해문 재구

## 1. 서론

의성김씨 ‘삼대(三臺)종택’에서 한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책 중에는 월천의 제자 김택룡, 채운경, 금협지가 필사한 『두시(杜詩)』 20권 6책이 있다(이후로는 『월촌두시』라 부른다).<sup>1)</sup> 『월촌두시』는 고송란(高崇蘭) 찬 『집천가주비점두공부시(集千家註批點杜工部詩)』의 원말명초 방각본 또는 그 계열의 책에서 두시를 필사하고, 언해 부분은 『두시언해』 「초간본」 ‘유포본’의 언해문을 필사한 책이다.<sup>2)</sup>

이종목(2018), 박진호(2018) 등의 해제에 의하면 『월촌두시』의 필사 시기는 『두시언해』 「중간본」의 간행 시기보다 빠르다. 그리고 언해문의 필사는 『두시언해』 「초간본」을 충실하게 전사하려는 방향으로 필사하였다. 그러나 필사 시 일부 언해문에 대한 한자와 구결자 사용, 그리고 필사 시의 실수 등으로 「초간본」 언해문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두시언해』 「초간본」은 권1·2·4를 제외한 나머지 22권이 현전한다. 따라서 현재 전하지 않는 「초간본」 권1·2·4의 언해문의 문면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물론 『두시언해』 「중간본」이 모두 현전하므로 「중간본」 권1·2·4를 통해 「초간본」의 모습을 재구할 수 있지만 「중간본」 『두시언해』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두시언해』 권1·2·4에 해당하는 「월천두시」의 언해문을 참조하여 「초간본」 『두시언해』 권1·2·4의 언해문을 재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3)</sup>

1) 이 책은 2018년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두시언해』라는 제목으로 2개의 해제를 포함한 영인본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는 해제 성격의 글인 이종목(2018)과 박진호(2018)이 실려 있는데 이 글들에서도 『월촌두시』라 불렀다. 『월촌두시』의 저본과 필사 과정, 그리고 이 책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해제를 참조할 수 있다.

2) 현전하는 『두시언해』 「초간본」의 ‘교정본’은 권6, 권7과 권17, 권18, 권19가 있다. 나머지 모든 현전 「초간본」은 ‘유포본’이다. 「초간본」의 ‘유포본’과 ‘교정본’에 대해서는 안병희(1998)를 참조하고, 『월촌두시』의 두시언해 본문이 유포본에 의한 것임은 김성주(2020)를 참조할 것.

3) 이 글에 사용된 예는 주로 『두시언해』 권3, 권5, 권17, 권19, 권20, 권23의 예를 인

이 글의 구성은 2장에서 『두시언해』 「중간본」의 특징을, 3장에서 「월천두시」 언해문의 특징을 정리하고, 4장에서 권1의 「徒步歸行」, 권2의 「恨別」, 권4의 「悲陳陶」 등 각 권의 두 번째 시를 선택하여 실제 재구한 언해문을 제시한다.<sup>4)</sup>

## 2. 『두시언해』 「중간본」의 특징

「초간본」이 현전하지 않는 『두시언해』 권1·2·4의 언해문을 재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간본」 언해문의 표기, 음운, 문법, 어휘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백두현(1989), 조남호(1995), 김성규(1998), 윤석민 외(2006), 박용찬(2010, 2011)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 2.1. 「중간본」의 표기

『두시언해』 「중간본」 언해문에서는 ‘△’과 ‘○’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초간본」 언해문 재구 시 15세기 기준으로 ‘△’과 ‘○’을 가진 단어들은 자동적으로 ‘△’과 ‘○’으로 교체하면 된다.

- (1) 가. ㄱ술-ㄱ울, ㅎ오사-ㅎ오아 등  
나. ㄱ장-ㄱ장, ㅎ정ㅎ - -ㅎ정ㅎ - 등

---

용하였으며 「월천두시」의 문면 검토도 25권의 일부와 위에 제시한 권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 『두시언해』 「초간본」 권1, 권2, 권4의 언해문을 모두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각 권의 첫 번째 시를 제시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각 권의 첫 번째 시인 권1의 「北征」, 권2의 「去蜀」, 권4의 「兵車行」이 상대적으로 긴 시들이어서 이들의 언해문을 제시하는 것조차 지면의 제약을 받으므로 각 권의 두 번째 시들의 재구된 언해문을 제시한다.

(1가)에서 볼 수 있듯이 「초간본」의 ‘△’은 「중간본」에서 ‘○’으로 표기되었다. 「초간본」의 ‘ㄱ술’이 「중간본」에서 ‘ㄱ을’로 표기된 사실로 볼 때, 「중간본」 편찬 당시에 ‘△’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간본」에서 「초간본」이라면 ‘△’으로 표기될 글자가 ‘○’으로 표기되었을 경우 「초간본」 언해문을 재구할 때에는 ‘△’을 기계적으로 대체하면 된다.

(1나)에서 볼 수 있듯이 「초간본」의 ‘ㅇ’도 「중간본」에서 ‘○’으로 표기되었다. 「초간본」의 ‘ㄱ장’에 대해서 「중간본」에서 ‘ㄱ장’로 표기된 사실을 통해 볼 때 (1나)의 예들은 ‘ㅇ’을 기계적으로 ‘○’으로 적은 표기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본」에서 「초간본」이라면 ‘ㅇ’으로 표기될 단어들은 기계적으로 ‘ㅇ’으로 대체하면 된다.<sup>5)</sup>

(2) 가. 구밧터리-구밧터리, 흘--훗- 등

나. 갓갓--갓갓-, 잣-잣 등

(3) 가. 갓갓--갓갓-, 잣-잣 등

나. 구밧터리-구밧터리, 얻--얻-(得) 등

『두시언해』 「중간본」의 표기법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음절말 ‘ㄷ’과 ‘ㅅ’의 중화로 인한 ‘ㄷ’과 ‘ㅅ’ 받침을 가진 단어의 표기의 혼란을 들 수 있다.<sup>6)</sup> (2가)에서 볼 수 있듯이 「초간본」에서 음절말에 ‘ㄷ’이 표기되던 어휘들이 「중간본」에서 ‘ㅅ’으로 표기되고 (2나)에서는 「초간본」에서 음절말에 ‘ㅅ’이 표기되던 어휘들이 「중간본」에서 ‘ㄷ’으로 표기되는 많은 예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3가)와 (3나)에서 보듯이 동일한 단어들이 「초간본」과 「중간본」에서 모두 동일한 자형으로

5) 물론 여기에는 재구를 위해서 몇 가지 더 고려할 점들도 있다.

6) 제시된 ‘A-B’의 형식의 예에서 A는 「초간본」의 예이며 B는 「중간본」의 예이다. 이하 동일하다.

표기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초간본」에서는 정연하게 표기되던 음절말 ‘ㄷ’과 ‘ㅅ’을 가진 어휘들이 「중간본」에서는 혼기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재구 시에는 「초간본」의 어형을 살려서 재구할 필요가 있다.

- (4) 가. (분철)무수미-무음이, 아로몰-알오몰 등  
나. (중철)고미-곰미, 흐러-훗터 등

『두시언해』 「중간본」에는 특히 체언에 조사가 결합할 경우에 분철이나 중철(혼철) 표기가 흔히 보인다. (4가)는 「초간본」에서 연결된 것이 「중간본」에서는 분철된 경우의 예이고, (4나)는 「초간본」에서 연결된 것이 「중간본」에서는 중철된 경우이다. 분철과 중철은 체언의 종성이 비음이나 유음 등 유성음일 때 분철이나 중철되는 경향이 높다. 재구 시에는 「초간본」의 ‘ㅇ’을 살리면 된다.<sup>7)</sup>

- (5) 가. (ㄴ일 경우)氣運이-氣運ㅣ 등  
나. (ㄴ일 경우)學士ㅣ-學士이 등

표기에 관련된 「중간본」의 특징으로는 격조사 표기의 혼란도 지적할 수 있다. 주격조사 ‘이’, 서술격조사 ‘이라’, 호격조사 ‘이여’ 등이 「초간본」에서는 자음 아래에는 ‘이, 이라, 이여’가, 모음 아래에는 ‘ㅣ, ㅣ라, ㅣ여’가 결합하는데 「중간본」에서는 이들이 자음 아래에서도 흔히 각각 ‘ㅣ, ㅣ라, ㅣ여’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아래의 (5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본」에서는 받침의 종류에 상관없이 특히 한자어에서 ‘이, 이라, 이여’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ㅣ, ㅣ라, ㅣ여’ 등으로 표기

7) 여기에도 정확한 재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나)에서 볼 수 있듯이 체언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도 ‘ㅣ’, ‘ㅣ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이’, ‘이랴’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 (6) 가. 舊丘를-舊丘을, 翠駁을-翠駁를 등  
 나. 江漢을-江漢를, 秦山을-秦山를 등  
 다. 나를-나를, 자취를-자취를 등

「중간본」에서는 대격 조사의 경우에도 (6가)와 같이 ‘를’이 ‘을’로 또는 ‘을’이 ‘를’로 바뀌어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예 중에서는 ‘鶻을-鶻를’과 같이 한자음의 받침을 중철 표기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또한 「중간본」에서는 (6나)와 같이 한자어가 ‘ㄴ’으로 끝나는 경우 ‘을/을’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를/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음절 초에서 원래 ‘ㄴ’이던 것이 ‘ㄹ’로 표기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6다)와 같이 역으로 ‘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 (7) 가. 머리에-머리에, 朝儀에-朝儀에 등  
 나. 霸業에-霸業에, 城에-城에.

처격조사는 「중간본」에는 (7가)와 같이 「초간본」의 ‘예’가 「중간본」에서 ‘에’로 자주 표기되었다. 또한 (7나)와 같이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존재하였다.

- (8) 가. 鄜州에-鄜州에, 橘洲에-橘洲에 등  
 나. 嘉州에-嘉州에 등

「초간본」에서도 ‘州’와 ‘洲’의 한자음은 ‘주’와 ‘쥬’로 읽혔는데 「중간본」에서도 이러한 혼란된 표기는 더 흔히 나타난다. (7)과 같이 ‘이’ 모음이나 하향이중모음 ‘ㅣ’로 끝나는 말에 처격조사 ‘-에/애’가 연결되어 있다면 「초간본」의 재구에서는 ‘-예’로 표기해야 하지만, (8)과 같이 한자를 어떤 한자음으로 읽었는지를 따져야 할 때에는 「초간본」언해본 재구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통계적인 우세가 없는 한 한 가지 형태를 특정하기가 곤란할 경우도 있다.

- (9) 가. 고기와-고기과, 수플와-수플과 등  
나. 부릅과-부릅와, 巾과-巾와.

「초간본」에서 체언이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경우에는 ‘-와’가,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과’가 결합하던 마지막 명사구에 붙는 접속조사의 경우에도 「중간본」에서는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인다. 재구 시에는 마땅히 음운론적 조건의 교체에 맞게 재구하여야 한다.

「중간본」에서는 합용병서의 혼란된 표기도 중요한 특징에 속한다. 중세국어의 합용병서에는 ‘ㅅ’계의 ‘ㅅ’, ‘ㅆ’, ‘ㅈ’, ‘ㄷ’계의 ‘ㅌ’, ‘ㅍ’, ‘ㅍ’, ‘ㅍ’, 그리고 ‘ㅍ’계의 ‘ㅍ’, ‘ㅍ’이 있다.

- (10) 가. ㅍ-ㅍ, ㅎㅍ-ㅎㅍ, ㅍ렛느니-ㅍ렛느니, ㅍ려-ㅍ려 등  
나. ㅍ-ㅍ, ㅍ-ㅍ, ㅍ돌해-ㅍ돌해, ㅍ여-ㅍ여, ㅍ노라-ㅍ노라 등  
다. ㅍㅍ-ㅍㅍ, ㅍㅍ, ㅍㅍ, ㅍㅍ, ㅍㅍ, ㅍㅍ 등  
라. ㅍ-ㅍ, 스노라-ㅍ노라 등

이 중 ‘ㅁ’계의 ‘ㅁ’은 ‘ㅁㄱ→ㅁㄱ, ㅁㄱ→ㅁㄱ, ㅁㄱ→ㅁㄱ’의 표기 양상을 보이며, ‘ㅁ’은 ‘ㅁㄱ→ㅁㄱ’의 표기 양상을 보인다. ‘ㄷ’계에서는 ‘ㅁㄱ→ㅁㄱ, ㅁㄱ→ㅁㄱ’ 등이 보이고, ‘ㅁ’→ㅁ, ㅁㄱ→ㅁㄱ, ㅁㄱ→ㅁㄱ’ 등으로 표기된다. ‘ㅁ’계에서는 ‘ㅁㄱ→ㅁㄱ, ㅁㄱ→ㅁㄱ, ㅁㄱ→ㅁㄱ 또는 ㅁㄱ’의 표기 양상을 보인다. 「초간본」에서는 각자병서가 전면 폐기되었으나 「중간본」에서는 각자병서가 적지 않게 쓰였다. ‘ㅁ’→ㅁ의 표기 양상도 보인다. 재구 시에는 당연히 원래의 합용병서 자형으로 복원시켜한 한다.

(11) 가. 놀라-롤라, 나날-나랄 등

나. 샷기롤-샷기놀, 자최롤-자최놀 등

「초간본」의 음절 초 ‘ㄴ’이 「중간본」에서는 ‘ㄹ’로 바뀌어 표기되는 현상도 있다. 음절 초의 ‘ㄴ’→‘ㄹ’ 현상은 오히려 역으로 「초간본」의 대격조사 ‘롤’이 「중간본」에서 ‘놀’로 표기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12) 가. 무수문-무으문, 주규물-주규물 등

나. 노푼-노푼, 더른-더른 등

모음조화의 혼란 현상은 「초간본」에서도 존재하였지만 「중간본」에서는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 재구의 관점에서 보면 「중간본」에서 보이는 모음조화의 혼란 표기가 항상 「초간본」에서는 모음조화에 맞게 표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초간본」에서 모음조화가 혼기된 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구할 때에는 모음조화에 맞게 재구할 수밖에 없다.<sup>8)</sup> 용언 활용의 경우에는 체언의 조사 결합에 비해서는 상

8) 모음조화의 혼기가 어휘나 음운 환경에 따라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초간본」 언해문의 재구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다 더 정밀한 「초간본」 언해문의

대적으로 덜하지만 모음조화의 혼기 현상은 여전하다.

(13) 방햏고와-방햏고와, 머엿<sup>ㄴ</sup>니-머예<sup>ㄴ</sup>니 등

「중간본」에서는 종성 ‘스’이 탈락된 예들도 적지 않게 보이는데, 이들은 폐쇄음과 비음 앞에서 자주 보인다. 재구 시에는 탈락된 ‘스’를 추가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중간본」의 표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표기와 관련된 「중간본」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과 ‘ㅇ’의 전면적인 폐기, 둘째 ‘ㄷ/스’의 중화로 인한 혼기, 셋째 분철, 중철(혼철) 표기의 빈번한 출현, 넷째 격조사 표기의 혼란, 특히 ‘이, 이라, 이어’ 등 주격, 서술격, 호격조사의 혼기, 다섯째 합용병서 표기의 혼기 등을 들 수 있다.

## 2.2. 「중간본」의 문법적 특징

「중간본」의 문법적 특징은 박용찬(2011)을 따라 크게 조사, 어미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우리말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두시언해』의 문법적 특징 중 통사론적 차원의 특징이 지면을 균할해서 할 만큼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사와 어미를 기술하면서 통사론적 특징도 같이 기술하기로 한다.

### 2.2.1. 조사

『두시언해』 「중간본」의 조사 관련 문법 특징으로는 접속조사 ‘-과/와’, 접속조사 ‘-이어’, 속격조사 ‘스, 주어적 속격, 처격조사 ‘-예’, 강세보조사 ‘-기’, 강세보조사 ‘-엄/암’, 보조사 ‘-마룬’ 등을 거론할 수 있다.

---

재구를 위해서는 모음조화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14) 가. ㄱ롬물와-ㄱ롬물과, 巾과-巾와 등

나. 부롬과 히와-부롬과 히와, 쇠와 돌과를 녹게 호어-쇠와  
돌과 물 호며 등

다. 하늘과 싸팍-하늘과 싸팍, 뵈와 물와-뵈와 물와 등

먼저 접속조사 ‘-과/와’의 불규칙적 통합 현상이다. 특히 (14나)에서 와 같이 접속되는 마지막 명사구에 ‘-과/왜’, ‘-과를/와를’, ‘-와/와’ 등이 쓰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은 듯하다. (14다)는 「초간본」의 ‘-와’이 중간본에서 ‘-와’으로 교체된 예이다. 「초간본」에서도 접속구의 마지막 명사구에는 접속조사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붙는 쪽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하므로 재구 시에도 마지막 접속 명사구에는 접속조사를 붙여서 재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5) 나리어-나리며, 나져 바며-나지 바미 등

(15)는 「초간본」의 접속조사 ‘-이여’가 다른 어형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접속조사 ‘-이여’는 「중간본」 당시에는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중간본」만으로는 재구에 어려움이 있다. (15)와 같이 「중간본」의 형태인 ‘나리며, 나지 바미’만으로는 「초간본」의 형태인 ‘나리어, 나져 바며’를 재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sup>9)</sup>

(16) 가. 구름 氣運-구름 氣運, 나졌 시름-나졌 시름 등

나. 머릿터럭-머리터럭, 빛대-비대 등

다. 굿匂-글匂, 꽃땡-플땡 등

9) 후술하겠지만 이런 경우 「월천두시」의 언해문이 「초간본」 재구 시 「중간본」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월천두시」의 언해문은 기본적으로 「초간본」의 언해문을 충실하게 필사하였기 때문이다.

- 라. 깊 가온대 阮籍-깊 가온뎃 阮籍, 城 응-城ㅅ 응 등  
 마. 窮흔 길헛 阮籍-窮흔 길헤 阮籍, 左右엿 사룸-左右에 사  
 룸 등  
 바. 저믄 뵙 일-저믄 뵙 일, 소틋 새로윈 것-소티 새로윈 것 등

「초간본」과 「중간본」의 비교를 통해 속격조사가 가장 혼란스럽게 쓰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6가)에서 「초간본」에서 쓰였던 속격조사 ‘ㅅ’이 「중간본」에서 탈락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6나)에서 볼 수 있듯이 ‘ㅅ’이 쓰인 합성명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6다)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초간본」에서는 ‘긋句, 바룻, 뵙벌, 뵙뎃, 하늬 브디’와 같이 선행음절이 ‘ㄱ’로 끝나는 합성명사의 경우 ‘ㄱ’을 탈락시키고 속격조사 ‘ㅅ’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본」에서는 오히려 속격조사 ‘ㅅ’이 탈락하고 선행음절의 ‘ㄱ’만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16라)와 같이 오히려 「초간본」에 없던 속격조사 ‘ㅅ’이 「중간본」에서 추가된 예들도 있다. 「초간본」의 ‘-엿/엿/엿’이나 ‘-잇/잇’ 등의 어형이 「중간본」에서는 ‘-애/애/애’나 ‘-이/의’ 등의 어형으로 교체되는 예도 많은데 (16마)는 그 예들이며, (16바)는 반대되는 예들이다. (16마, 바)에 제시된 예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간본」 당시에 ‘-엿/엿/엿’이나 ‘-잇/잇’ 등 처격조사에 결합되는 속격조사 ‘ㅅ’의 기능도 일반적인 속격조사 ‘ㅅ’의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과 맞물려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7) 가. 술 避호미 어려우믈-술 避호미 어려우믈 등  
 나. 부름빰 모도매-부름비 모도매 등  
 다. 先王이 法 밍 7루샤문-先王이 法 밍 7루샤문 등  
 「중간본」에서는 이른바 주어적 속격 기능이 소멸하는 경향이 있었

다. 주어적 속격 ‘-이/의’는 주어적 속격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어적 속격 ‘스’은 기능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7가)는 「초간본」의 주어적 속격 ‘-이/의’가 「중간본」에서 주격으로 바뀐 예이고, (17나)는 「초간본」의 주어적 속격 ‘-스’이 「중간본」에서 주격으로 바뀐 예이며, (17다)는 「초간본」의 주격이 「중간본」에서 오히려 주어적 속격 ‘-이/의’로 바뀐 예이다.<sup>10)</sup>

(18) 가. 갑곡-갑고 등

나. 안즈라-안즈락 등

「초간본」에 쓰이던 강세보조사 ‘-기’이 「중간본」에서는 소멸하였다. (18가)의 예는 연결어미 ‘-고’나 ‘-어’에 강세보조사 ‘-기’이 쓰인 예들인데 「초간본」에서 쓰이던 강세보조사 ‘-기’이 「중간본」에서는 쓰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18나)에서 볼 수 있듯이 연결어미 ‘-라’에 강세보조사 ‘-기’이 쓰인 ‘-락, -락 … -락’의 예들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19) 스랑후간마룬-스랑후간마논 등

「초간본」에서 보조사 ‘-마룬’은 「중간본」에서 ‘-마논’으로 교체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임진란 이전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하므로 「중간본」에서는 예외 없이 ‘-마논’으로 표기된다.

### 2.2.2. 어미

10) 주격조사 ‘-이’, 서술격조사 ‘-이-’, 호격조사 ‘-이여’나 대격조사의 혼기 그리고 처격조사 ‘-에’→‘-에’ 등에 대해서는 2.1. 「중간본」의 표기 특징을 참조할 것.

「중간본」에서 어미와 관련된 문법 특징으로는 ‘ㄹ/르’ 용언(‘ㄹ/르’ 체언 포함), 선어말어미 ‘-오-’의 탈락(명사형어미 ‘-옵’, 연결어미 ‘-오디’, ‘-오려’, ‘-올덴’, 감동법의 선어말어미 ‘-웃-’ 등 포함), ‘-거닐’ → ‘-거늘’, ‘-(거)든’ → ‘-(거)든’, ‘-드록’ → ‘-도록’, 일부 어미의 형태 및 기능 변화 등이 있다.

- (20) 가. 올라가려뇨-올라가려뇨, 덜어-덜러 등  
나. 줄이니-줄리니.

「초간본」에서는 ‘ㄹ/르’ 용언은 ‘달아’, ‘달음’과 같이 활용하는 ‘다 ㄹ-’ 유형과 ‘몰라’, ‘몰롬’과 같이 활용하는 ‘모 ㄹ-’ 유형으로 나뉘어진 다(고영근 2020: 131-132). 중세국어 말기부터는 첫째 유형이 둘째 유형으로 통합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20가)와 같이 「중간본」에서도 둘째 유형으로 통합된 예가 더러 보인다.<sup>11)</sup> 중세국어의 ‘ㄹ/르’ 체언도 ‘굴이’, ‘굴을’처럼 첫째 유형을 보여주는 것과 ‘홀리’, ‘홀를’처럼 둘째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20나)처럼 원래 첫째 유형에 속하는 명사 ‘조르’가 「중간본」에서 둘째 유형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 (21) 가. 甚호라-甚호도다, 조보몰-조브몰 등  
나. 免호라-免호라.  
다. 慰勞호느다-慰勞호노라, 마초 호니-마초 호니 등<sup>12)</sup>

선어말어미 ‘-오-’는 「초간본」에서 종결어미, 연결어미, 관형사형

11) 둘째 유형의 ‘브르-’, ‘썩르-’, ‘부르-’ 등이 ‘블로니-블오니’, ‘셀로미-셀오미’, ‘블롤-블롤/블론-블론’ 등과 같이 첫째 유형의 교체를 보여주는 예도 있다.

12) 단 이 경우에는 「중간본」의 편찬자가 「초간본」의 편찬자와 달리 원문을 파악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어미 앞에 나타나는데 이 ‘-오-’가 16세기부터 소멸하기 시작하며 그 소멸 양상은 「중간본」에 잘 반영되어 있다. 선어말어미 ‘-오-’의 탈락은 명사형어미 ‘-옵’, 연결어미 ‘-올덴’, ‘-오디’, ‘-오려’, 감동법의 ‘-옷-’의 ‘-오-’에도 적용된다. 선어말어미 ‘-오-’의 탈락에 따라서 「초간본」의 ‘-다라’, ‘-오리라’, ‘-가니오’의 ‘-오-’가 「중간본」에서 각각 ‘-더라’, ‘-으리라’, ‘-거니오’로 표기된다.<sup>13)</sup> 또한 (21다)와 같이 「초간본」에서 통합되지 않았던 ‘-오-’가 「중간본」에서 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오-’ 소멸과 관련하여 「중간본」에 자주 보이는 종결어미 ‘-뢰’의 출현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현상은 ‘-오-’의 소멸 및 기능 약화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22) 가. 나라-나뢰, 토라-투뢰 등

나. 가뢰, 호뢰 등

다. 문노라-문로라, 붓그리노라-붓그리로라 등

(22가)와 같이 「중간본」에 나타나는 ‘-뢰’에 대해서는 김완진(1976)에서 선행하는 용언 어간에 통합되어 있던 선어말어미 ‘-오-’가 소멸되면서 그 흔적을 후행하는 종결어미 부분에 남긴 영향으로 파악하였고, 정재영(1998)에서도 ‘-뢰’는 17세기 초-중엽의 언해 문헌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았다. 그런데 (22나)와 같이 ‘-뢰’가 「중간본」 권1과 권2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간본」 권1, 권2, 권4의 「초간본」 언해문을 재구할 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2다)는 「초간본」의 ‘-노라’가 「중간본」에서 ‘-로라’로 표기되는 예이다(박용찬 2011).

13) 그러나 ‘-오디’, ‘-오려’ 등은 ‘-오-’가 탈락하여 ‘-오되’, ‘-오려’ 등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드물다.

- (23) 가. 거시어놀-거시어늘, 니르거놀-니르거늘(謂) 등  
나. 슬커늘-슬커놀, 니르거늘-니르거놀(至) 등
- (24) 가. 닷가든-닷가든.  
나. 오나든-오나든

(23가)와 같이 「초간본」의 ‘-거늘’이 「중간본」에서 ‘-거늘’로, (23나)와 같이 「초간본」의 ‘-거늘’이 「중간본」에서 ‘-거늘’로 표기되며, (24가)와 같이 「초간본」의 ‘-(거)든’이 「중간본」에서 ‘-(거)든’으로 표기되고, (24나)와 같이 「초간본」의 ‘-나든’이 「중간본」에서 ‘-나든’으로 표기되는 경향이 있다.

- (25) 가. 니르도록-니르도록, 새도록-새도록 등  
나. 늑도록, 못도록.

‘-도록’이 ‘-도록’으로 표기되는 양상은 「초간본」에서도 아주 드물지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25가)와 같이 「초간본」의 ‘-도록’이 「중간본」에서 ‘-도록’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25나)는 「초간본」에서 ‘-도록’이 쓰인 예들이다.

- (26) 가. 다웁 업슨, 다웁 업수물, 다웁 업소라 등  
나. 다웁 업도다-다웁이 업도다.

「초간본」에서 관형사형 어미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일부이지만 있지만 이러한 기능은 「중간본」에서 소멸되었다. (26가)에서와 같이 「초간본」에서는 ‘-르 ㅎ’이 동명사 어미로서도 기능하는 예

가 여럿 있었는데, (26나)에서와 같이 「중간본」에서는 「초간본」의 ‘다음 업도다’가 ‘다음이 업도다’로 교체되어 더 이상 동명사 어미의 명사적 용법은 없어지고 이들은 명사형 어미로 교체되어 표기되었음을 볼 수 있다.

### 2.3. 어휘

「중간본」에서 어휘에 관련된 특징으로는 ‘ㅎ’말음체언, 명사 → 형용사 파생접미사 ‘-뉘-//-뉘-’과 ‘-릐-//-릐-’, ‘-엄직ㅎ-’ → ‘-엄즉ㅎ-’, ‘-엿/엿/엿-’-앗/엇/앗-, 기타 어휘 변화(‘긔가ㅎ-’ → ‘긔바ㅎ-’ (‘긔-’ → ‘긔부-’) 등이 있다.

(27) 가. 남자홀-남자롤, 하늘홀-하늘롤 등

나. 내과-내과, 하늘과-하늘과 등

먼저 ‘ㅎ’말음체언은 15세기부터 조금씩 동요되기 시작하였으나 근대국어 시기에는 사라지게 된다. 「중간본」도 ‘ㅎ’말음체언은 ‘ㅎ’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27가)와 같이 ‘ㅎ’이 없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ㅎ’말음체언의 ‘ㅎ’ 소실은 (27나)에서와 같이 접속조사 ‘과’와의 통합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28) 가. 썩르윈-썩르온

나. 새로윈-새로운, 외르윈-외로온, 외로윈-외로운

「초간본」에서 명사를 형용사로 파생시키는 접미사인 ‘-뉘-//-뉘-’와 ‘-릐-//-릐-’는 「중간본」에서 (28가, 나)와 같이 ‘-르오-’, ‘-로-

오-'로 자주 쓰인다.

- (29) 가. 그침직 하니-긋침즉 하니, 우섬직 호도다-우엄즉 호도다 등  
나. 긋가 호노라-긋바 호노라, 긋가 호누니-긋바 호누니 등

또한 각각 (29가)와 (29나)에서 「초간본」의 ‘-엄직호-’가 「중간본」에서는 ‘-엄즉호-’로, 「초간본」의 ‘긋가 호-’가 「중간본」에서 ‘긋바 호-’로 표기되는 예를 볼 수 있다.

- (30) 가. 썩덧고-뻘덧고, 振動호얏고-振動호얏고 등  
나. 버므렛고-버므렛고, 지엏도다-지엏도다 등

(30가)와 같이 「초간본」의 ‘-얏/엏/얏-’ 등이 「중간본」에서 ‘-얏/엏/얏-’으로 표기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은 초간본에도 보이는 현상이지만 「중간본」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났다. (30나)는 「초간본」에서 ‘-얏/엏/얏-’으로 표기되던 형태들이 「중간본」에서 오히려 ‘-얏/엏/얏-’으로 표기된 예들이다.

### 3. 『월촌두시』 언해문의 특징

『월촌두시』 언해문의 특징에 대해서는 기존에 살핀 논의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재구와 관련되는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sup>14)</sup>

14) 『월촌두시』는 권말에 쓰인 필사기에 의하면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이 제자인 응휴(應休) 채운경(蔡雲慶), 시보(施普) 김택룡(金澤龍), 협지(夾之) 금응협(琴應夾) 등에게 『집천가주비점두공부시』의 두시 본문을 필사시키고 간단한 주석

먼저 『월천두시』의 언해문은 『두시언해』 「초간본」 중 ‘교정본’이 아닌 ‘유포본’을 저본으로 삼아 언해문을 충실하게 필사한 책이다. 그러므로 『두시언해』 「초간본」 언해문의 재구가 ‘교정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초간본」의 ‘유포본’과 ‘교정본’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월천두시」는 필사본으로서의 숙명적인 필사 오류는 물론, 필사에 구결자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모음조화와 같은 태생적인 한계, 그리고 한글 대신 한자를 사용한 부분의 부정확성 등의 이유로 「월천두시」의 언해문이 「초간본」 언해본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초간본」이 없는 『두시언해』 권1, 권2, 권4의 「초간본」 언해문을 재구하기 위해서는 「중간본」 권1, 권2, 권4와 「월천두시」의 해당 언해문을 적절히 참조하여 재구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초간본」 권1, 권2, 권4의 언해문 재구를 위해 필요한 「월천두시」 언해문의 특징을 살펴본다.

「월천두시」 언해문의 필사에는 한글뿐만 아니라 구결자도 사용되었다. 사용된 구결자는 총 54개인데 하나의 구결자가 둘 이상의 독음에 대응할 경우 재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월천두시」에 쓰인 구결자 중 2개의 독음을 가진 구결자로 ‘ㄱ’[거, 커], ‘ㄴ’[노, 로], ‘ㄷ’[뇨, 료], ‘ㅈ’[든, 든], ‘ㅊ’[대, 댄], ‘ㅌ’[시, 시], ‘ㄷ’[애, ऐ], ‘ㅅ’[야, 얘] 등이 있으며, 세 개의 독음을 가진 구결자로 ‘ㅁ’[물, 물, 무]이 있고, ‘ㅍ’과 ‘ㅊ’은 각각 [은, 논, 은, 는, 니]과 [을, 룰, 을, 룰, 리] 등 5개의 독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쓰인 구결자는 구결을 현토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한글 문장을 전사하는데 사용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구결과는 달리 문법 형태도 아울러 표기하였다.

을 옮겨적은 다음 『두시언해』 「초간본」 중 ‘유포본’의 언해문을 여백에 필사시킨 책이다. 참고로 이 책의 필사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壬午倩蔡應休金施普琴次之書(임오년(1602)에 채운경, 김택룡, 금응협에게 맡겨 쓰게 하였다)”.

「월천두시」의 언해문의 특징으로는 ‘△’의 표기를 들 수 있다. 「중간본」에서는 ‘△’이 기계적으로 ‘○’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중간본」 언해문의 문면으로는 ‘△’이 들어 있는 「초간본」 언해본의 형태를 재구하기 위해서는 ‘△’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 경우 「월천두시」는 요긴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sup>15)</sup>

「월천두시」도 필사본이기 때문에 필사본으로서 숙명적으로 필사시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

- (31) 가. 기동애셔-기돈 ㄹ 셔, 부들-브들, 말와미로라-말 ㅏ 미 ㄹ ㅏ  
(浮萍) 등  
나. 꺾거식 쫘과 다뭇 꺾거식-꺾거식 쫘 ㅁ (다뭇) 꺾거식 ㅁ  
리(鬼妾與鬼馬) 등

(31가, 나)는 「월천두시」에서 필사시의 잘못으로 보이는 예들인데 (31가)의 ‘기돈 ㄹ 셔’는 ‘기동애셔’의 잘못이며, (31나)의 ‘꺾오리 업스’는 ‘꺾오리 업스니’에서 ‘니’를 빠뜨린 것이다.

또한 「월천두시」는 「초간본」 ‘유포본’의 언해문을 필사하면서 수정한 것도 있다. 「월천두시」에서 수정한 부분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초간본」 언해문의 재구이므로 이 경우 ‘유포본’과 ‘교정본’의 관계를 따져서 재구에 반영해야 한다.

- (32) 가. 空牆: 빈 담-빈 담

15) ‘월천두시 강독 스테디’에서 안대현 선생은 「월천두시」 언해문에서 ‘△’과 ‘○’을 구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필사자들이 ‘△’과 ‘○’을 의도적으로 구분하면서 필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초간본」 언해문의 ‘△’을 충실하게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과 달리 ‘○’은 특히 종성에 쓰인 ‘○’의 경우 「월천두시」의 언해문이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샷(62), 버으리 ㅏ 다(97), 당다이(915)’ 등의 몇몇 예를 제외하면 ‘○’은 ‘△’과 달리 「월천두시」의 언해문이 「초간본」 언해문 재구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나. 春冬: 겨슬와 보미-봄과 겨수레, 鳧雛: 올히논-올히 샷기  
ㅍ 등

(32가)는 「초간본」 유포본의 언해문에 오자가 있었기 때문에 「월천두시」에서 교정하여 필사한 것이며, (32나)는 두시의 원문인 ‘春冬’과 ‘鳧雛’를 「초간본」 유포본에서 각각 ‘겨슬와 보미’와 ‘올히논’으로 번역하였는데 각각 ‘봄과 겨수레’와 ‘올히 샷기 ㅍ’으로 교정하여 필사한 것이다. 이 경우 역시 「초간본」의 ‘유포본’과 ‘교정본’의 관계를 잘 따져서 「초간본」 언해문을 재구할 필요가 있다.

「초간본」에 사용된 주어적 속격의 경우 「중간본」에서는 ‘ㅅ’ 주어적 속격은 완전히 폐기되고, ‘-이/의’ 주어적 속격은 일부에 한해서 쓰였는데, 「월천두시」는 「초간본」 언해문의 문면을 그대로 필사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초간본」 언해문의 문면대로 일 것으로 생각되나 아래의 (33)과 같이 「초간본」의 주어적 속격이 「월천두시」에서는 평범한 주격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실재 「초간본」 언해문의 재구에서 ‘속격’에 관련된 사항은 「초간본」 언해문의 문면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월천두시」는 분철한 경우가 많다. 우리는 앞에서 「중간본」의 경우, 분철과 중철(혼철)이 「초간본」에 비해 보다 빈번했음을 보았는데 「월천두시」도 「초간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철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월천두시」의 분철은 특히 구결자가 조사나 어미로 표기될 경우에 흔하다.

(33) 가. 므리-물ㄴ, 소틀-술ㄷ, 뵈트레-뵈틀ㄹ 등

나. 무를-몰을, 늣시우를-늣시울을 등

다. 잔애-자내, 잔을-자늘 등

(33가)는 조사로 구결자가 쓰일 경우 자동적으로 분철 표기 되는 예들이고, (33나)는 구결자가 쓰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철된 경우이다. 그러나 (33다)와 같이 「월천두시」에서는 역으로 「초간본」에 분철로 표기된 것을 연철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중간본」에서는 속격 ‘ㅅ’을 삭제한 경우가 많은데 「월천두시」는 「중간본」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속격 ‘ㅅ’을 삭제한 표기가 많다.

(34) 東屯ㅅ 벼-東屯 벼, 驛엿 섯는 남근-驛ㅅ 섯는 남근 등

(34)와 같이 속격 ‘ㅅ’이 삭제된 채로 필사된 경우에는 「초간본」 언해문을 재구할 때는 「초간본」의 자형을 신중히 숙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초간본」에서는 주로 ‘-ㄹ’ 종성을 가진 단어가 속격조사 ‘ㅅ’과 결합할 때 종성 ‘ㄹ’이 탈락하고 ‘ㅅ’만 남는 예가 있다. ‘바룻, 찢벌, 짓門의, 꺾더, 하룻 뜨디’ 등의 ‘바룻, 집, 풀, 하룻’ 등이 이에 해당하는 단어들인데 정밀한 재구를 위해서는 이런 단어의 경우 ‘ㄹ’을 유지하는 경우와 ‘ㅅ’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 후자의 형태로 재구할 수는 없다. ‘ㅅ’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비해서 ‘ㄹ’을 유지하는 경우가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간본」의 경우 「초간본」에서 ‘ㅅ’ 단독의 경우라도 「중간본」에서는 오히려 ‘ㅅ’을 탈락시키고 원래의 ‘ㄹ’ 종성만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월천두시」의 자형이 ‘ㅅ’ 단독형이라면 재구에는 「중간본」의 자형을 버리고 「월천두시」의 자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중간본」의 격조사 표기는 혼란스러워 「초간본」 언해문을 재구할 때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월천두시」의 경우는 「중간본」의 표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초간본」 언해문의 표기에 가깝기 때문에 재구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월천두시」의 표기도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아서 재구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 (35) 가. 길히로소니-길히 又 所ヒ, 豪傑이로소니--- 又 소니 등  
나. 鵬鳥 | 로다-鵬鳥 又 ヲ, 後 | 로다-後 又 ヲ 등

(35가, 나)는 「월천두시」에서 「초간본」의 ‘|’ 또는 ‘이’를 표기에 반영한 경우와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예들인데,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간본」 언해문 재구 시 음운 환경에 따라서 ‘|’ 또는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 (36) 가. 南山<sup>오</sup>로-南山 乙 又, 暁<sup>로</sup>로-<sup>로</sup> 乙 又 등  
나. 錦으로-錦 又, 酒泉郡으로-酒泉郡 又 등

(36가, 나)는 각각 「초간본」의 ‘-<sup>오</sup>로/으로’를 포함한 단어에서 ‘<sup>오</sup>/<sup>로</sup>’를 표기에 반영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예이다. 그러나 「초간본」 언해문의 경우 ‘<sup>오</sup>/<sup>로</sup>’의 쓰임은 규칙적이므로 음운 환경에 따라서 재구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재구에 별 어려움이 없다.

「월천두시」에는 「초간본」 언해문에서 한글로 표기된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가 있다. 「초간본」의 ‘거문고를’을 「월천두시」에서는 ‘磬 乙’으로 표기되어 있고, 「초간본」의 ‘머리물’은 「월천두시」에서 ‘氷 乙’으로 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물’과 같은 동일한 단어가 각각 ‘頭 乙’과 ‘首 乙’ 등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sup>16)</sup> 그러나 이런 경우는 「중간본」을 참고하면 되므로 재구에 문제는 없다. 「초간본」 언해문을

16) 이런 경우 원문에 사용된 한자에 의해 「월천두시」의 한자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가 결정된다. ‘首 乙’은 원문에 ‘首’가 쓰였고 ‘頭 乙’은 원문에 ‘頭’가 쓰였다.

재구할 때 「월천두시」가 「중간본」에 없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역으로 「월천두시」가 주지 못하는 정보를 「중간본」이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은 음절 말 ‘ㄷ’과 ‘ㅅ’의 혼기 현상이다. 「초간본」에서 질서정연하게 표기되던 음절 말 ‘ㄷ’과 ‘ㅅ’을 가진 단어들이 「중간본」에서는 상대적으로 혼란된 표기 양상을 보여준다. 「월천두시」는 「중간본」보다는 훨씬 더 「초간본」의 언해문에 가깝게 필사한 자료이므로 이 경우에도 「월천두시」의 언해문이 재구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월천두시」 필사 당시의 음운 환경은 음절 말 ‘ㅅ’과 ‘ㄷ’의 구분이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월천두시」에도 음절 말 ‘ㅅ’과 ‘ㄷ’의 혼기를 보여주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 (37) 가. 곧도다-긋도夕/긋도다, 일큰눏다-일긋 又 必夕 등  
나. 괴왓논-괴웁논, 펫논-펜논 등

(37가)는 「월천두시」에서 음절 말 ‘ㅅ’과 ‘ㄷ’의 혼기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초간본」의 음절 말 ‘ㅅ’과 ‘ㄷ’ 표기가 규칙적이므로 「월천두시」의 자형에 관계 없이 규칙에 따라서 재구하면 된다. (37나)는 비음화가 반영된 「월천두시」의 예들인데 비음화의 경우 「초간본」에서도 비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있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비음화 이전의 자형으로 재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초간본」 언해문의 원래 모습을 정확히 재구하는 것은 어렵다.

차자표기의 특성상 구결자는 정확한 모음조화를 표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음조화 표기에 관한 한 「월천두시」의 언해문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8) 가. 호물/호믈-手勿, 예/애-ㄹ, 흘/흘-ㅅ 乙

나. ㅍ(은, 논, 은, 논, ㄴ), ㅈ(을, 룰, 을, 룰, 르, 으)

(38가)의 ‘ㄴ’이 ‘물/물’을 표기하고, ‘ㄹ’가 ‘에/애’를 표기하기 때문에 「월천두시」의 언해문에 ‘ㄴ’, ‘ㄹ’가 쓰였을 경우 「초간본」의 언해문에서 ‘물’과 ‘물’ 중에서 또는 ‘에’와 ‘애’ 중에서 각각 어떤 것이 쓰였는지 알 수 없다. 「초간본」 언해문이 모음조화에 관하여 비교적 정연한 규칙적 표기를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 예외까지 정확하게 재구할 수는 없다. 게다가 「월천두시」 선행문에서도 모음조화를 위배하는 표기도 있다.

(38나)의 ‘ㅍ’, ‘ㅈ’ 등도 마찬가지로인데 이들은 모음조화뿐만 아니라 선행음절의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서 받침이 있을 때는 ‘은, 은’을 표기하고, 받침이 없을 때는 ‘논, 논’을 표기하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 「초간본」에 예외적인 표기가 있다면 정확하게 재구할 수 없게 된다. 더군나다 ‘ㅈ’은 경우에 따라서는 ‘으’ 표기를 대신하고 있어 이런 경우 특별한 환경을 재구에 반영해야 한다.

(39) 가. 미해 빗겨 그쳤느니-미해 빗겨 그쳤느니(橫野斷)

나. 玉繩의 빗겨 가물-玉繩의 빗겨 가물(玉繩橫)(참고. 「월천」  
玉繩의 빗겨가물)

한편 어휘에서도 「월천두시」 필사 당시 또는 필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즐겨 쓰는 어휘가 「월천두시」의 언해문 표기에 반영된 경우도 있는데, 「초간본」의 ‘뵈-’의 경우 「중간본」에서는 모두 ‘뵈기-’로 쓰이고 있어 「중간본」 편찬 당시에는 ‘뵈-」뵈기-’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월천두시」는 「초간본」 언해문을 충실하게 그대로 옮기려는 경향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초간본」의 ‘뵈-’도 거의 모든 경우에 동

일하게 ‘뵈-’으로 필사되었지만 ‘뵈기-’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 (39)의 ‘뵈겨’는 「초간본」에서는 ‘뵈겨’로 쓰였으나 「월천두시」에서는 ‘뵈겨’로 필사되어 있다. 재구에 이용할 때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두시언해』 초간본의 ‘드위-’ 계열 어휘는 ‘두위-’ 계열과 ‘두의-’ 계열로도 쓰이고 있는데 이 어휘군은 「초간본」에서도 다양한 이표기를 보인다. 「초간본」의 ‘드위티고’가 「월천두시」에서는 ‘두의티고’로 필사되어 있는데, ‘드위티-’와 ‘두의티-’는 「초간본」에서도 둘 다 쓰였으므로 「초간본」의 언해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월천두시」와 「중간본」만으로 「초간본」 언해문을 재구할 때 실제로 「초간본」 언해문이 양자 중 어떤 형태로 표기되었을지 알 수 없다. 단 실제 『두시언해』 「초간본」에서는 ‘두위-’ 계열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재구 시에는 일단 ‘두위-’ 계열로 재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 4. 재구의 실제

여기서는 『두시언해』 「초간본」 권1, 권2, 권4의 두 번째 시인 「徒步歸行」, 「恨別」, 「悲陳陶」를 예로 「중간본」과 「월천두시」의 언해문을 이용해서 「초간본」 언해문을 재구한다. 먼저 「초간본」 권1의 두 번째 시인 「徒步歸行」이다.

「徒步歸行」

「두시 본문」01明公壯年值時危 經濟實藉英雄姿

「초간」①明公이 壯盛 〇 나해 ②時節 危亂을 ③맛나니 ④經濟를  
眞實로 英雄 〇 사르물 藉賴 〇 시느니라

「월천」明公、壯盛、〇 나해 時節 危亂 乙 맛나니 經濟 乙 眞實 乙

英雄 ヽ 尸 사르물 藉賴 ヽ 寸 匕 匕 스

「중간」明公 | 壯盛 혼 나해 時節 스 危亂 을 만나니 經濟 를 眞實 로  
英雄 혼 사르물 藉賴 호 시느니라

「두시 본문」02國之社稷今若是 武定禍亂非公誰

「초간」나라 社稷 | 이제 이 곧 호니 武로 禍亂 을 ⑤安定호문 ⑥公  
이 아니라 누리오

「월천」나라 社稷 〰 이제 이 곧 〰 武 스 禍亂 乙 安定 호문 公 〰 아  
匕 스 누 畢 五

「중간」나라 社稷 | 이제 이 곧 호니 武로 禍亂 을 安定호문 公 | 아  
나라 누리오

「두시 본문」03鳳翔千官且飽飯 衣馬不復能輕肥

「초간」鳳翔 〰 千官 | ⑦바분 ⑧아야라 비브르 먹거니와 옷과 물  
와는 또 能히 가비야오며 슬지디 못 호니라

「월천」鳳翔 尸 千官 〰 바분 애 〰 스 비브르 먹거 匕 〰 옷과 물와  
는 또 能히 가비야오며 슬지디 못 〰 匕 스

「중간」鳳翔 〰 千官 | 밥은 아야라 비브르 먹거니와 옷과 물와는  
또 能히 가비야오며 슬지디 못 호니라

「두시 본문」04靑袍朝士最困者 白頭拾遺徒步歸

「초간」靑袍 니븐 朝士 | 안직 貧困 호니는 머리 셴 拾遺 | 거러 가  
노라

「월천」靑袍 니븐 朝士 〰 안직 貧困 〰 〰 는 머리 셴 拾遺 〰 거러 가  
又 스

「중간」靑袍 니븐 朝士 | 안직 貧困 호니는 머리 셴 拾遺 | 거러 가

노라

「두시 본문」05人生交契無老少 論交何必先同調

「초간」⑨人生애 벌 사괴요문 늘그니 저므니 업서 ⑩무슴 서르 아  
로미 貴흐니 사괴욘 議論호문 엇데 구퉁여 몬젓 ⑪同調로  
샤 흐리오

「월천」人生 ㄱ 벌 사괴요문 늘그니 저므니 업서 무슴 서르 아 ㅅ미  
貴 ㅅㅅ 사괴욘 議論 ㅅ문 엇데 구퉁여 몬젓 同調 ㅅ샤 ㅅ ㅅ  
五

「중간」人生애 벌 사괴요문 늘그니 저므니 업서 무욘 서르 아로미  
貴흐니 사괴욘 議論호문 엇데 구퉁여 몬젓 同調로아 흐리오

「두시 본문」06妻子山中哭向天 須公櫪上追風驃

「초간」妻子 | 山中 ㅅ 지빅셔 ⑫하늘홀 向하야 우러 내 가몰 브라  
느니 그딛 櫪上엿 ⑬追風驃를 타 가고져 求호노라

「월천」妻子 ㅅ 山中 ㅅ 지빅셔 天 乙 向 ㅅ ㅅ 우러 내 가몰 브라느니  
그딛 櫪上엿 --- 乙 타 가고져 求 ㅅ ㅅ ㅅ

「중간」妻子 | 山中 ㅅ 지빅셔 하늘홀 向하야 우러 내 가몰 브라느  
니 그딛 櫪上엿 追風驃를 타 가고져 求호노라

다음은 「초간본」 권2의 두 번째 시인 「恨別」의 「초간본」 언해문을 재구한다.

「恨別」

「두시 본문」01洛城一別四千里 胡騎長驅五六年

「초간」⑭洛城을 혼 번 여희요니 머로미 四千里로소니 胡騎는 기

리 들어 골외오미 다엿 히로다

「월천」洛城乙 〃 卍 번 여희요니 머로미 四千里又新比 胡騎 卍 기  
로 들어 골외오미 다엿 히 又 夕

「중간」洛城을 혼 번 여희요니 머로미 四千里로소니 胡騎는 기리  
들어 골외오미 다엿 히로다

「두시 본문」02草木變衰行劍外 兵戈阻絕老江邊

「초간」⑮草木이 改變호야 ⑯衰殘호거늘 ⑰劍閣스 맞기 와 녀노  
니 干戈애 길히 ⑱병으러 그출시 ㄱㄹ ⑲ㄱㅅ 와 늡노라

「월천」草木、改變 〃 也 衰殘 〃 巨乙 劍閣 卍 맞기 卜 녀 又 比 干戈  
ㄱ 길히 병으러 그출시 ㄱㄹ ㄱㅅ 卜 늡 又 ㅅ

「중간」草木 | 改變호야 衰殘호거늘 劍閣 맞기 와 녀노니 干戈애  
길히 병으러<sup>17)</sup> 그출시 ㄱㄹ ㄱㅅ 와 늡노라

「두시 본문」03思家步月清宵立 憶弟看雲白日眠

「초간」지블 수랑호야셔 두래 건너 물곤 ⑳바미 셋고 ㉑앗을 수랑  
호야 구루믈 보고 불곤 나래 ㉒조오노라

「월천」지블 수랑 〃 也 셔 두래 건너 물곤 바미 셋고 앗을 수랑 〃 也  
구루믈 보고 불곤 나래 조오 又 ㅅ

「중간」지블 수랑호야셔 두래 건너 물곤 바미 셋고 아을 수랑호야  
구루믈 보고 불곤 나래 조오노라

「두시 본문」04聞道河陽近乘勝 司徒急爲破幽燕

「초간」河陽애 ㉓요수시 사흙 ㉔乘勝호몰 ㉕니루거늘 듣노니 ㉖  
司徒이 썰리 爲호야 ㉗幽燕을 헤티리로다

17) 해당 부분의 '병'의 'ㅇ'은 보사한 흔적이 보임.

「월천」河陽 尸 요수시 사흠 乘勝 手 木 니르 巨 乙 듣 又 乙 司徒 〰 썰  
里 爲 〰 也 幽燕 乙 헤티 里 又 夕

「중간」河陽애 요수이 사흠 乘勝호를 니르거놀 듣노니 司徒 | 썰  
리 爲 亨야 幽燕을 헤티리로다

다음은 「초간본」 권4의 두 번째 시인 「悲陳陶」의 「초간본」 언해문을 재구한다.

「悲陳陶」

「두시 본문」01孟冬十郡良家子 血作陳陶澤中水

「초간」孟冬애 열 7 웁 良家子の ㉘ 피 陳陶 ㅅ 못 가온딛 ㅁ리 ㄷ외  
나라

「월천」孟冬 尸 열 7 웁 良家子の 피 陳陶 ㅁ 못 가온딛 ㅁ ㄷ외 ㅁ ㅅ

「중간」孟冬애 열 7 웁 良家子の ㄷ 陳陶 ㅅ ㅁ 가온딛 ㅁ리 ㄷ외니  
라

「두시 본문」02野曠天清無戰聲 四萬義軍同日死

「초간」드르히 흰 ㅎ고 ㉙ 하늘히 ㅁ고 사흘 소리 업스니 四萬 ㉚ 義  
軍이 혼 날 주그니라

「월천」드르히 흰 〰 ㅁ 天 〰 ㅁ고 사흘 소리 업스니 四萬 義軍 〰 〰  
ㅁ 날 주그 ㅁ ㅅ

「중간」드르히 흰 ㅎ고 하늘히 ㅁ고 사흘 소리 업스니 四萬 義軍이  
혼 날 주그니라

「두시 본문」03-04群胡歸來血洗箭 仍唱胡歌飲都市 都人回面向北  
啼 日夜更望官軍至

「초간」몹 되 도라와 사랏 피를 싯고 仍ᄃ야 되 놀애 브르고 都市예  
이셔 술 먹느니 都邑ᄃ 사루몬 ㄴ출 도르혀 北을 向ᄃ야 우  
러 밤나지 ㉓官軍의 오물 다시 브라누다

「월천」몹 되 도라와 사랏 피ᄃ 싯고 仍ᄃᄃ 되 놀애 브르고 都市  
예 ᄃ셔 술 먹느니 都邑ᄃ 사루몬 ㄴ출 도르혀 北ᄃ 向ᄃᄃ  
우러 밤나지 官軍이 오물 다시 브라누다

「중간」몹 되 도라와 사랏 피를 싯고 仍ᄃ야 되 놀애 브르고 都市예  
이셔 술 먹느니 都邑ᄃ 사루몬 ㄴ출 도르혀 北을 向ᄃ야 우  
러 밤나지 官軍의 오물 다시 브라누다

위에서 『두시언해』 「초간본」 권1의 「徒步歸行」, 권2의 「恨別」, 권3의 「悲陳陶」의 「초간본」 언해문을 「중간본」, 「월촌두시」 그리고 「초간본」에 대한 지식에 기대어 재구해 보았다. 총 30개의 어구를 재구하였는데 이들을 재구한 근거는, 첫째 「초간본」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둔 것, 둘째 「월천두시」 언해문에 근거를 둔 것, 셋째 「중간본」 언해문에 근거를 둔 것, 넷째 모음조화 규칙에 근거를 둔 것, 다섯째 ‘△’과 ‘ㅇ’의 지식에 근거를 둔 것 등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초간본」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둔 것으로는 ①明公이, ③맛나니, ⑥公이, ⑦바분, ⑮草木이, ⑯司徒이, ⑳義軍이 등 7개이다. 이들은 다시 한자어 뒤의 주격조사의 형태(①,⑥,⑮,⑯,㉑), 「중간본」에서 비음화를 경험한 어휘(③), 연철과 분철(⑦)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자어 뒤의 주격조사, 계사, 호격조사 등은 「초간본」에서는 자음 아래에서 ‘이, 이라, 이여’ 등으로, 모음 아래에서 ‘ㅣ, ㅣ라, ㅣ여’ 등 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이러한 지식에 의거하여 초간본의 형태인 ‘①明公이, ⑥公이, ⑮草木이, ⑯司徒이, ⑳義軍이’ 등을 재구할 수 있다. ③‘맛나-’는 「중간본」에서 비음화 하여 ‘만나-’로 쓰였지만 「초간본」

에서는 ‘맞나’만 쓰였다는 「초간본」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재구할 수 있다. ⑦‘바분’은 「월천」에는 ‘바분’, 「중간」에는 ‘밥은’으로 표기되어 있어 각각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월천」을 참고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초간본」 연철과 분철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둔 것으로 처리하였다.

둘째, 「월천두시」에 근거를 둔 것으로는 ②時節, ⑦애야라, ⑩劔閣<sub>ㅅ</sub>, ⑫주오노라, ⑭피 등 5개이다. 이들은 다시 속격조사 표기(②, ⑩), 어휘 표기(⑦, ⑫), 오기(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초간본」에서 속격조사 ‘ㅅ’은 「중간본」에서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해당 문면에서 속격조사 ‘ㅅ’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초간본」의 언해문을 비교적 충실하게 필사한 「월천두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②時節은 「월천」에서 ‘時節’로 「중간」에서 ‘時節<sub>ㅅ</sub>’으로 표기되었는데 「중간본」에서 쓰인 속격조사가 오히려 특이한 표기법이고 또 「월천」에는 속격조사 ‘ㅅ’이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時節’로 재구할 수 있다. 또 ⑩劔閣<sub>ㅅ</sub>은 「월천」에는 ‘劔閣<sub>ㅅ</sub>’으로 「중간」에는 ‘劔閣’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초간본」 언해문을 충실히 필사한 「월천」의 ‘劔閣<sub>ㅅ</sub>’에 의존하여 재구할 수 있다.

⑦‘애야라’와 ⑫‘주오노라’는 조금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먼저 ‘애야라’는 「초간본」에서 ‘아야라, 애야라, 애여러, 아야로시, 애야루시’ 등 여러 가지 이표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아야라’는 「두시 3:32 ㄱ」, 「두시 3:35 ㄱ」, 「두시 8:30 ㄴ」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애야라’는 「두시 12:24 ㄴ」, 「두시 13:30 ㄴ」, 「두시 15:13 ㄱ」 등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월천두시」에는 ‘애야라’가 「중간본」에는 ‘아야라’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 선택해야 하는데 「월천두시」가 「초간본」 언해문을 충실하게 필사하였다는 점과 ‘애야

라'와 '아야라'의 비교에서 '아야라'는 음절부음 'ㅣ'의 탈락이 있는 어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या라'로 재구하였다.

㉑ '조오노라'는 「월촌두시」에서 '조오 ㄷ ㅅ'로 「중간본」에서 '조오노라'로 표기되었는데 '조올-'과 '조올-'은 '조올-'의 경우 '조올려뇨' 「두시5:34 ㄱ」, '조오로미' 「두시6:42 ㄴ」, '조오라셔' 「두시8:47 ㄱ」 등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고, '조올-'의 경우 '조오노니' 「두시3:7 ㄱ」, '조오로미' 「두시3:40 ㄴ」, '조오로물' 「두시6:36 ㄴ」 등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어서 양자가 모두 「초간본」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으므로 재구를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도 「월촌두시」가 「초간본」 언해문을 충실히 필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오노라'로 재구하였다.

마지막 ㉗ '피'의 경우에는 「중간본」에 '되'로 되어 있는 것은 오기이다. 「월촌두시」에 '피'로 되어 있고 원문도 'ㅍ'이므로 당연히 「월촌두시」를 따라 '피'로 재구할 수 있다.

셋째, 「중간본」에 의거하여 재구한 경우로 ㉒ '호닐홀', ㉓ '追風驪를', ㉔ '하닐히' 등 3개가 있다. 이 중 ㉒와 ㉔는 「월촌두시」에서 각각 '天 ㄷ'과 '天 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중간본」의 표기인 '호닐홀'과 '하닐히'로 재구할 수 있다. ㉓ '追風驪를'은 「월촌두시」에서 '--- ㄷ'로 표기되어 있는데 「월촌두시」의 '---'는 두시 원문에 따라 '追風驪'로 볼 수 있지만 「중간본」에 '追風驪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본」에 의거하여 재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 이외의 재구한 어구들은 모두 모음조화와 'ㄷ', 'ㅇ'에 대한 것들이다. 이들은 사실은 모두 「초간본」에 대한 지식, 15세기 국어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음조화의 경우 수량도 많고 또 마냥 「초간본」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ㄷ'과 'ㅇ'은 기계적인 처리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따로 다루었다. 먼저 모음조화 규칙을

근거로 재구한 것으로는 ‘④經濟를, ⑤安定호문, ⑨人生애, ⑭洛城을, ⑯衰殘호거늘, ⑳바미(「월촌」바미-「중간」바미), ㉔乘勝호물, ㉕니르거늘, ㉗幽燕을, ㉘官軍의’ 등 10개인데, 이 글에서는 모음조화에 해당 하는 어형을 모음조화 규칙에 맞게 재구하였지만 실제로는 「초간본」에서도 모음조화에 맞지 않는 어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 하나의 표기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두시언해』의 모든 언해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그런 작업을 거친 후에도 확정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모음조화 규칙에 맞게 재구하였다.

‘△’이 폐기된 어구들의 경우 모두 ‘△’을 복원시켰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예들로는 ‘⑨무숨, ⑩同調로사, ⑱ᄃᆞᆫ, ㉔앗을, ㉔요스시’ 등 총 5개가 있다. 또 ‘ㅇ’의 경우도 ‘△’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ㅇ’을 복원시켰는데 그 예로는 ‘⑰병으러’ 1개가 있다. ‘△’과 ‘ㅇ’은 「월촌두시」에서도 모두 복원된 어형과 같이 표기되어 있어 「월촌두시」를 근거로 재구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과 ‘ㅇ’은 「중간본」에서 모두 기계적으로 폐기된 것이어서 모두 「초간본」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재구한 유형으로 처리하였다.

## 5. 결론

이상에서 삼대종택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증한 『월촌두시』의 언해문을 바탕으로 「초간본」이 없는 『두시언해』 권1, 권2, 권4의 언해문을 재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초간본」 언해문의 재구는 「중간본」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므로써 거의 대부분 재구할 수 있으나 「월촌두시」가 「초간본」의 언해문을 그대로 필사하려고 한 자료이기

때문에 언해문 필사에서 구결자를 사용하였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중간본」만으로는 재구할 수 없는 부분들의 재구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월천두시」만으로 「초간본」의 재구가 완전할 수는 없다. 일례로 모음조화 표기와 길이 「초간본」의 언해문 자체가 어느 정도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재구한 「초간본」 권1, 권2, 권3의 「徒步歸行」, 「恨別」, 「悲陳陶의 「초간본」 언해문의 재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간본」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소 미약하더라도 진일보할 수 있는 재구된 「초간본」 언해문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On the Reconstruction for the Transcribed Eonhaemun Text  
of the First Published Version of *Tusieonhae*(1)

Kim, Soneg-ju(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reconstruct the transcribed Eonhaemun text of the first published version of *Tusieonhae* vol. 1st, 2nd and 4th, based on the *Tusi* (hereinafter referred to as *Wolcheondusi*(月村杜詩)) which was donated to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by *Samdaejongtaek*(三臺宗宅) of the *Uiseong Kim Clan*.

The transcribed Eonhaemun text of its second published version is the basis for the reconstruction of that of the first published version. However, there are some parts that can not be exactly reconstructed by the transcribed Eonhaemun text of the second published version. The transcribed Eonhaemun text of the *Wolcheondusi* can help to reconstruct of the transcribed Eonhaemun text of the first published version of *Tusieonhae* vol. 1st, 2nd and 4th especially for the form concerning the Vowel Harmony, Genitive markers, the intensifier particles '-k, -eom/am, -marən', the lexical form concerning the semi-final -o-, nominallizer markers, substituted from gerund marker, the derivative adjective containing '-dɛβ-/ -dɛβei-', '-rɛβ-/ -rɛβei-', and the word 'ketba hɛ-' and 'ketki-' which we can not know the exact transcribed Eonhaemun

text of the first published version of *Tushieonhae*.

Of course, *Wolcheondusi* also has problems such as the use of an inaccurate character so-called Kugyol about specifically the vowel harmony and the error of transcription as a manuscript, but we can get the text that is closer to the transcribed Eonhaemun of the first published version of *Tusieonhae* vol. 1st, 2nd and 4th using the that of *Wolchondusi*.

**Key words:** Samdaejongtaek(三台宗宅), *Wolcheondusi*(月村杜詩), *Tushieonhae*(杜詩諺解), the first published version, the second published version, the reconstruction of the transcribed Eonhaemun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영인본

『두시언해』 권6「교정본」, 『국어학자료선집 2』 일조각, 1971/1983.

『두시언해』 권19「교정본」, 『한국어연구 2』 한국어연구회, 2004.

『두시언해』 권1-25「중간본」, 『원본 두시언해』, 대제각, 1998.

『두시언해』 권1-25「중간본」, 『중간 두시언해 1-5』, 태동.

『두시상주(杜詩詳註) 第1冊-第5冊』 北京: 中華書局出版, 1979.

□ 단행본

고영근(2020),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제4판)』 서울: 한국문화사.

윤석민 외(2006), 『쉽게 읽는 중각두시언해』, 도서출판 박이정.

이병주(1958/1970), 『보정판 두시언해비주』, 통문관.

이현희 외(1997가), 『두시와 두시언해 6』, 신구문화사.

이현희 외(1997나), 『두시와 두시언해 7』, 신구문화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1998), 『두시와 두시언해 연구』, 태학사.

韓成武·張志民(1997) 『杜甫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下定雅弘·松原郎(2016) 『全詩譯註 杜甫』, 講談社學術文庫 2333, 東京: 株式會社  
講談社.

□ 논문

김성규(1998), 「표기자의 의도를 통해서 본 중간본 두시언해의 음운론적 특징」, 『  
두시와 두시언해 연구』, 태학사, 267-290면.

박용찬(2010), 「두시언해 초간본과 중간본의 비교-표기 변화를 중심으로-」, 『한  
말연구』 제27호, 한말연구학회, 93-126면.

박용찬(2011), 「“두시언해” 초간본과 중간본의 문법적 특징 비교」, 『우리말글』 제  
53호, 우리말글학회, 1-44면.

- 박진호(2018), 『『월촌두시』 해제』, 『두시언해 한국학진흥원 소장자료 영인총서 17』, 한국국학진흥원.
- 백두현(1989), 「두시언해 초간본과 중간본의 통시음운론적 비교」, 『어문학』 제 50호, 한국어문학회, 49-67면.
- 杉山豊(2019), 「1480年代 諺解文獻語의 脫規範化와 多樣化에 對한 研究 : 音韻과 表記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대현(2020), 「월촌두시 ‘증이백(贈李白)(二年客東都)’ 발표문(2020.09.05)
- 안병희(1988), 『『杜詩諺解』의 서지학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1998), 109-139면.
- 안병희(2005), 「권17·18·19 해제」, 『한국어연구』 제2권, 한국어연구회, 99-104면.
- 윤용선(1993), 『『두시언해』,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문학과지성사, 173-186면.
- 이종묵(1998), 「杜詩의 언해 양상」, 『杜詩와 杜詩諺解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143-175면. 『두시언해』 「초간본」 언해본 재구 시론(1)·425.
- 이종묵(2018) 「월천의 제자들이 필사한 『월촌두시』 『두시언해 한국학진흥원 소장자료 영인총서17』, 한국국학진흥원.
- 이호권(2003), 「杜詩諺解 重刊本の 板本과 言語에 對한 研究」, 『震檀學報』 제95집, 震檀學會, 135-164면.
- 정재영(1998), 『『杜詩諺解』의 文法的 特徵』, 『杜詩와 杜詩諺解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215-266면.
- 조남호(1995), 「중간두시언해에서의 〇, △ 표기의 변화 양상」, 『국어사와 차자 표기』, 태학사, 751-763면.